

### 광주 광산구, 낮은 문턱·욕실에 휠체어 드나드는 아파트

거동불편한 어르신 등 ‘케어안심주택’ 제공  
프로젝트 협약 기관인 LH와 리모델링 추진

광주 광산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장기입원환자 세대 20곳을 ‘케어안심주택’으로 재단장해줬다. 케어안심주택은 광산구의 임대아파트 주민 복지정책인 ‘영구임대 늘 행복 프로젝트’ 주거 분야 대표사업으로, 고령·장애·장기입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영구임대아

파트 주민의 주거공간을 개조해주는 것이다. 6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케어안심주택 대상을 모집·선정했다. 나아가 행정안전부 협업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 확보한 2억원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협약 기관인 LH와 리모델링을 추

진했다. 광산구는 리모델링에 앞서 견본 주택 1호를 시공해 케어안심주택 대상자들에게 공개했다. 수요자 중심 사업을 지향한 광산구가, 이 주택에 거주할 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을 거쳐 기존 아파트는 무장애 공간으로 거듭났다. 여러 개의 문턱들은 낮춰졌고, 휠체어는 욕실·발코니·방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공에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등이 쓰여 앞으로 케어안심

주택 거주 주민들은 냉·난방비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지네트웍(대표 박관병)은 케어안심주택 입주 주민을 위해 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후원했다. 리모델링 전후로 들어간 이사 비용은 투계광산나눔문화재단에서 지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는 케어안심주택을 비롯해 의료·돌봄·일자리 등 삶 전반을 개선하는 늘 행복 프로젝트를 착착 실행해 대한민국 복지전달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행택기자

### 무안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무안군은 농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연간 48만원 상당(자부담

20%)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년 동안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에 참여중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소포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 되면 임신부터 출산이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꾸러

미 형태로 직접 품목을 선택해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해져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대상자 90명에 한해 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후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대상을 추가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무안=이계성기자

### 순천시, 아동인권팀 신설해 아동학대 없는 순천만들기

순천시는 아동학대 피해예방 및 아동보호 업무에 공공중심의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1일부로 아동인권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를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됐다는 것이다. 공공중심의 인권 보호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순천시 아동인권팀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으로 구성 됐다.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순천경찰서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민간기관(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진하였던 아동학대 업무를 오는 9월까지 순천

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두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며 이 후에는 순천시에서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조기발견과 피해예방이 중요한 만큼 정인이 사건처럼 가슴아픈 일이 없도록 아동보호의 공적책임을 다해 아이들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영암군, ‘2차 재난생활비 지급’ 원스톱 서비스

내달 19일까지 원스톱 창구마련 신청 동시에 수령  
영암군 영암읍(읍장 정제기)은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위한 ‘영암군 2차 재난생활비’ 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영암군 2차 재난생활비 지급 원스톱 창구’를 영암읍사무소에 마련하여 신청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1인당 1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다. 영암읍 관계자는 “재난생활비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암농협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접수를 병행하여 최대한 많은 영암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보성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가정 방문 혈압·혈당 체크 서비스 제공  
보성군 별교읍 맞춤형복지계는 지난 15일 생계·주거·의료 위기

가구를 찾아 혈압·혈당 체크 봉사를 실시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별교읍 맞춤형복지계는 한파와 코로나19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긴급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 조사에 나간 별교읍 관계자는 “이번 겨울은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상황”고 했다.

또한 “복지 소외 계층, 취약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인적 안전망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노인, 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공적 지원은 물론 후원 물품 및 생계비,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